

BBS 법륜스님 '1백일 강좌' 세상시름 덜어주는 감로수

부처님 근본 가르침 통해 고민 해결... 7월17일 종강 재방송 검토

21일 오전11시,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1백일 법문'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녹음하고 있는 서초동 정토포교원 중앙법당.

평일인데도 3백여명의 불자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메모지를 준비해 법문 내용을 적고 있는 보살, 현장에서 듣는 것도 부족해 법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대학생 등 마치 입시생 교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진지하다.

또 법문에 참여한 사람들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은 물론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모여들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다.

창법가에 이어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법문이 시작됐다. "자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부처는 자기의 성품을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이 말씀은 육조 혜능스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돈황본 단경>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성철 큰스님께서 해설해 주신 대목입니다.

BBS 청취자들은 매일 밤 11시5분 주파수를 불교방송에 고정해 놓으면 1백일동안 차분하고 따스한 법륜스님의 감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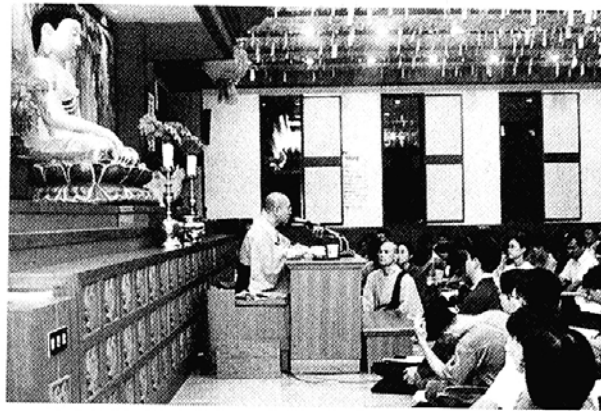
4월19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이 프로에서 법륜스님은 불교의 첫걸음, 부처님의 일생, 불교의 근본사상, 불교 변천사를 포함해 <반야심경>과 <금강경>, <육조단경> 등에

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가 이처럼 법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자들에게도 주목 받는 이유는 인간성 상실, 자연환경 파괴 등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초발심자들이 자칫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끼기 쉬운 불교 교리나 용어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강의식 법문이라고 청취자들은 입을 모은다.

방송을 못듣는 날이면 가족들에게 녹음 부탁을 할 정도로 열성적인 직장인 이소희씨(24)는 "타 종



▷법륜스님의 BBS 백일법문.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는 녹음 현장(정토법당)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교를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폭넓은 예화를 들어 법문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며 "사회문제나 여성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 설명하는 것이 이 방송을 계속 듣게 되는 이유"라고 즐거워 했다. 또 주부 이선미씨(54)와 대학생 김철운씨(23) 등 네 티즌들도 하루 종일 일이 안풀려 지쳐 있다가도 밤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면 용기와 힘이 생긴다고 하이텔을 통해 청취소감을 올려놨다.

박상필PD는 "어려운 시기에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

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방송이 끝난 뒤 재방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는 청소년 청취자가 많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주부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불교 교리를 통해 해소해 주면서, 폭넓은 청취층 확보라는 새로운 성과를 얻어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초동 법당에서 마지막 녹음을 마친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는 오는 7월17일까지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⑨



박경훈 '불교저널' 편집인

새벽 3시30분이면 잠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월간 <불교저널> 창간호를 7월 20일 세상에 내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박경훈 <불교저널> 편집인(67, 동국대 명예교수)은,

배달된 조간신문을 보고, 뒷상으로 향한다. 운동과 명상의 시간이다. 빨리 걸거나 맨손체조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다. 최근에는 월간잡지 <불교저널> 창간을 준비하면서 걸거나 운동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6시쯤. 메모를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책을 읽는다. 아침식사는 메뉴는 죽,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전날 먹고 남은 밥을 끓인 것이다.

"건강을 자랑하지도 않지만, 건강을 위해 특별히 먹는

새벽마다 뒷산 거닐며 명상 음식 가리지 않고 적게 먹어

것이나 운동에 신경쓰지 않아요. 그저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업으로 알고 살아왔죠."

그러나 특별한 비결이 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도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적당한 건강을 얻습니다.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화학, 수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어요. 그들의 정확성이 내에게는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주위에서 술,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지만, 끊는다거나 즐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식생활과 관련하여도 까다롭지 않다. 음식을 가리지 않으며, 즐겁게 먹는다. 단지 적게 먹는 것만큼은 지킨다. 이것도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버린다. 원고를 쓰다가 막히면 놓아버린다. 대인관계도 방학(方下着)이다.

"바둑 두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인데,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판을 포기하라더군요. 그런 원리가 있어야지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도, 숨기지도 말했는데, 이렇게 드러내면 민망할 따름입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단편영화 '천년동안 미륵은...' 8월 촬영

화엄·화쟁사상 돌미륵 통해 형상화



▷신성호 감독

단편영화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구축해온 신성호감독이 최근 불교영화 '천년동안 미륵은...'에서 있었다를 제작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년동안 미륵은...'은 밀레니엄시대, '대중' 등 우리 역사의 모순이었던 세가지 화두를 돌미륵을 통해 형상화 한 작품. 이데올로기의 상충을 안고 사는 재현, 종교적인 구원에 의지하는 광범한 진주, 신세대 여성 은지가 함께 돌미륵을 찾아 다

니며 각자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강득은 "중장편물이 각기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화엄과 화쟁사상에 대해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8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며 홈페이지(www.121.co.kr)를 통해 연기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입시생 참선지도' 프로 신설

불교TV 28일부터 부분 개편



▷선체의 준비 자세부터 유행법선까지 소개하는 '해원스님의 선체조'.

불교TV(사장 허문도)는 28일부터 '입시생 위한 참선지도' '해원스님의 선체조' '사찰 통신'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한 부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우선 '입시생 위한 참선지도'(월~토, 오전 6시45분~오전 6시55분), 이태영 한국요가수련원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에서는 불교 수행법을 통해 시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선 내용과 지도 방법 등을 제시해 준다. 또 '해원스님의 선체조'(월~토, 오전 6시55분~오전 7시15분)는 선체조의 준비자세부터 유행법선 등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선체조를 '함께 생각해 보는 불교 이야기 코너'와 함께 방영한다.

이외에도 종단이나 사찰소식 등을 음악영상과 함께 꾸미는 '사찰통신'(월~토, 오전 8시15분~오전 8시25분)도 불교 정보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청소년 소식

심성개발·극기훈련

삼천사 부설 인덕어린이집 제1회 여름불교학교가 7월 24일~25일 열린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선을 통한 자아 심성개발, 수련을 통한 극기훈련 등을 통해 불성개발을 통한 종교적 만남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02)353-3004

어린이·청소년 캠프

금강명동승회 제6회 하계 어린이 청소년 캠프가 7월 24일~26일

까지 개최된다. 어린이는 경주 오케이그린목장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은 포항 금강정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0562)261-2231 오성민

파라미타 임원 연수

파라미타연합캠프 운영위원 연수회가 7월 3일~4일 오대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연합캠프운영위원들에게 사진 연수를 통해 담당업무를 숙지시키고, 행사 진행요령을 습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1백20여명이 참가할 예

정이다. (02)723-6165

청교련 사전지부 창립

대한불교청교련교화연합회 경남 사전지부가 창립된다. 청교련 사전지부(지부장 이길열)는 7월 3일 현성스님(청교련 이사장) 초청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심리검사·학습상담

목동 청소년회관은 매주 월~금요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학습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

시한다. 또 중학생을 위한 방학특강 학습방법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훈련, 심리극 등의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린이 한문서당 열어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원장 김중호)가 7월 19일~8월 27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초등학생 4,5,6학년생을 위한 한문서당을 연다. (02)3675-5506

함지골 여름방학 캠프

함지골수련원에서는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여름 문화특강을 7월 26일~8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연다. 동요, 농구, 만화, 기타, 우리가락, 글쓰기 등을 옴니버스식으로 진행한다. (051)405-5222

호남지역 명예학생기자 모집

부처님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소식지 월간 <무지개결린 나무>에서는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예학생기자를 모집한다. 나무 편집실은 호남지역 청소년들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영호남 교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053)783-4478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실익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분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울나무와 소나무의 울진과 솔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울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감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허먼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울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울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주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신식 감정콩은 특이 번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번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천소, 열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Ⅰ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점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통승항토마을

▶ 왕토 관련 전문 회사 왕토 마을 예선

- ① 황토 주터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월 2-3회
- ④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봉승항토마을

화제의 신간
佛國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통합하여 과거로부터 미래로 유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지수화합이 잘 화합하지 못할 때 병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이롭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병이 생기면 마음에 의한 것, 업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4대가 포화를 이루지 못해 생기는 것임을 인식하고 늘 참회기도와 업장소멸기도를 하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중에서>

한국불교교무원의 이사장이며 불교역사의 주지인 박운월 스님이 가슴으로 품어왔던 불명어들을 방긋으로 삼고 살아 오색 빛 영혼한 비단실로 뿜아 올린 주옥같은 명문집! 이땅에 불국토를 이룰 때까지 정진과 고백을 늦추지 않고자 하는 한 수행승의 원력과 몸부림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전편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 10여 편씩 총 52편의 글이 실려 있다.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인간 세상사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명징한 사색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다.

※ 책을 구입하실 분은 설립연구원으로 연락하셔도 되며, 조개사 앞 불교서점은 물론 교보, 영풍, 종로서적 등 시내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나 많은 호응 바랍니다. ※ 회원이나 범보시 등 다량 구매시 30% 할인해 드립니다.

신국판/304면/값 7,000원 / 도서출판 숭바람 · 설립연구원 ☎ 720-0824